**범종**

　범종은 일본 각지의 불교 사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조종(釣鐘)입니다. 승려에게 기도 의식을 알리거나 하루의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. 이 범종은 7세기 말에 제작되었으며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범종입니다.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

　범종은 불교에서 제례 의식을 거행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, 12월 31일부터 1월 1일에 걸쳐 종을 울리기 위해 사원이나 신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(제야의 종). 범종은 밧줄에 매단 통나무를 사용해서 울립니다. 또한, 종 테두리 부분에 장식된 대륙 양식의 당초무늬는 다자이후가 세계와 오랜 시간 교류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

　청동으로 주조된 이 범종은 높이가 160cm, 최대 지름은 약 86cm입니다. 역사적 및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성이 높은 범종으로서 종종 일본 각지에서 전시되기도 합니다.